

종합

광주지하철 전동차 '전기 재생'

관성 에너지 이용...연간 9000만원 절감

광주지하철에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전력회생용 인버터시스템'이 시범설치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8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및 (주)비츠모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된 750V급 회생용 인버터시스템을 지하철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한 역사 내 전기시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9000만원의 전기에너지 절약과 483t의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문섭 박사는 "지하철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제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개 기관은 기술 및 정보교류, 신기술 현장 적용 등을 통해 국내 도시철도 기술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경찰청장 동반사퇴 촉구 항명 파동 강북서장 직위해제

경찰청은 28일 항명 파문을 일으킨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에 백운용 서울청 교통관리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성과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현직 서장이 분청 지휘계통 보고 등 정상 절차를 통해 개선책을 건의할 수 있음에도, 언론 인터뷰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조직 내 지휘계통을 위반한 기강문란 행위"라고 설명했다.

문했다. 강 청장은 성과주의의 일부 부작용과 평가 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제하고 후임에 백운용 서울청 교통관리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채 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양천서의 고문 의혹의 원인이 지나친 성과주의에 있다며 조현호 서울청장에 게 동반사퇴를 요구해 파문이 일었다. 채 서장은 "양천서 사건은 우선 가혹행위를 한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크겠지만 실제 경정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청 지휘부의 책임도 크다. 이런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데 근원적 책임이 있는 조 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증도·창평은 느린 삶의 천국”

전남 일대 둘러본 국제슬로시티 시장단 물고기 잡기·슬로푸드 시식 “원더풀”

국제슬로시티 총회 시장단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남 지역을 찾아 “하늘이 내려준 지역으로, 슬로시티의 이념을 잘 실현하고 있다”는 예찬론을 폈다. 한국슬로시티본부와 국제슬로시티연맹 주최로 열린 '2010국제슬로시티 시장 한국총회'에 참석한 시장단 등 100여명은 27일부터 이틀간 슬로시티로 지정된 신안 증도와 담양 창평을 방문,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한 뒤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슬로시티 행사가 열린만한 지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 온 아노우드 로덴버그(Arnoud J. Rodenburg) 시장은 28일 담양 창평 전통가옥에서 대동밥과 백년초를 활용해 만들어 낸 죽순회, 솥뚜껑 부침개, 장아찌 등 37가지의 다채로운 남도 슬로푸드를 맛보고 “원더풀”을 연발했다. 그는 또 장작불로 감자를 쪄먹은 뒤 “전남은 한국의 슬로시티 운동

을 선도해 나갈 만한 충분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느림’이 경쟁력이라는 데 공감하고 남도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비롯해 자연 생태·먹거리 등 느림의 가치를 담은 것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외국 시장단 방문을 통해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남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느림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 전남 관광개 유치에 총력을 쏟

겠다”고 말했다. 슬로시티연맹 시장단은 이날 하동으로 옮겨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뒤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한편, 자연 속에서 ‘느림의 삶’을 살자는 국제슬로시티운동은 지난 1999년 국제연맹이 창설돼 현재 20개국 132개 도시가 가입해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안·완도·장흥·담양 등 전남 4개 지역을 비롯, 하동과 예산을 포함해 모두 6개 도시가 아시아 지역 슬로시티로 지정돼 있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2010 서울 슬로시티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슬로시티 시장단이 28일 담양 창평의 삼치내마을을 찾았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 14개국 슬로시티의 전·현직 시장과 민간분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쌀엿과 대동밥 등 창평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40여 가지의 슬로푸드를 시식하며 남도의 맛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담양군청 제공>

여수 장외박람회장 순천만 지정키로

순천만이 여수세계박람회 장외박람회장으로 지정된다. 서갑원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세계박람회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부터 “순천만을 여수박람회 장외박람회장으로 지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순천만 연계관광이 해외 엑스포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규정상 장외박람회장 및 전시장을 엑스포 관람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1면 '민선 5기'서 계속

김종식 전 해남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사 발주 과정에서 여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박연수 전 진도군수도 지난 2006년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의 영광·화순·장흥·담양·장흥·나주 등도 모두 해당 단체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최근에는 전주연 광주 서구청장이 인사 청탁과 관련한 뇌물 수수로 구속됐고, 오현섭 여수시장의 경우 경관조명사업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비리가 너무도 일상화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다.

부리 깊은 ‘관행’ 탓에 공직자들이 탈·불법에 무감각해지면서 열악한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도 많다. 화순군은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업체가 호안(護岸)을 쌓는 과정에 사용한 돌(5176t)을 인근에서 채취해 썼는데도 1t당 1만9953원에 구입한 것처럼 인정해, 현재 1억1360만원을 낭비했다. 전남도가 지난해 28개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업무 처리(303건)로 인한 재정적 손실만 169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8년에는 165억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회도 심각하다.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 키워방기에 열중하고 외유성 해외시찰에 나서는가 하면, 의정비 인상 등 ‘짓밥’에만 눈이 멀어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민선 5기에는 이같은 병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ongdu.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person and a large speech bubble containing the text '대~한 미국!!' and '8강 1진!'. Below the illustration, it asks '그것도 응원이라고 하십니까?!'.

光銀 분리 매각안 내달 2일 확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 광주은행 분리 매각안을 확정짓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매각 방법으로는 과거 서울은행이나 조흥은행 매각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은행 등을 분리매각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음

달 2일 회의에서 분리매각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분리매각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매각방법 등을 담은 매각공고도 공시될 전망이다. 광주은행 등을 분리매각하되, 예금보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은 투자제안서를 받아 경쟁 입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땅한 투자자가 없을 경우 분산매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해 소규모로 허용하도록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린벨트 게이트볼장 허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노인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허용되고 주말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해 소규모로 허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신행안내 14면' (New Guide 14 pages) from '분실' (Lost) section. It lists various notices including '신주 인수권 및 실권부 최고' (New Share Certificate and Lost Certificate) and '주식회사 여수수산물 특별시장' (Jeosu Seafood Special Market).

Advertisement for '아스콘 포장공사 입찰공고' (Asphalt Paving Work Tender Notice). It details the project location (Jeonnam Province), tender date (June 30, 2010),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Jeonnam Provincial Highway Bureau.

Advertisement for '광고접수안내' (Advertisement Acceptance Guide). It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services, including phone number (062) 227-9600 and fax number (062) 227-9500.

Advertisement for '환경영향평가(간이평가서) 재협의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implified Assessment Report) Re-consultation Notice and Resident Explanation Meeting Notice). It details the project location (Jeonnam Province), the date of the meeting (June 29, 2010),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Jeonnam Provincial Highway Bureau.

Advertisement for '2010년도 산학 공동기술개발 연구과제 수요조사' (2010 Annual Academic-Industry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 Project Demand Survey). It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survey, including the deadline (July 1, 2010)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ECPC (Economic and Cultural Policy Center).

Advertisement for '경성인회석 대리점모집' (Gyeongseong Inhoeok Agent Recruitment). It promotes the recruitment of agents for '대리점모집' (Agent Recruitment)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Gyeongseong Inhoeok.